

HI Economy

원/달러 환율 1,200원선 안착 가능성 높아져

박상현

Chief Economist
(2122-9196)
shpark@hi-ib.com

김진명

Economist
(2122-9208)
Jm_kim@hi-ib.com

■ 미국 8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NDF시장에서 원/달러 1,200원 돌파

4일 NDF(뉴욕차액결제선물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3일 원/달러 환율 증가(1,193.4 원)보다 +7.25원 상승한 채 마감. 이에 따라 9월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개장 초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됨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선을 넘어선 바 있지만 이번 경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에서 당분간 등락을 유지할 공산이 높아 보임. 원/100엔 환율 역시 10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 대내외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이 우위

원화 약세 압력으로는 우선 미국 정책금리 인상 우려를 들 수 있음. 8월 애매한 고용지표 결과가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높여주었지만 당사는 9월 혹은 9월 금리인상 시그널 이후 10월 인상이라는 기존 전망기조를 유지함. 9월 혹은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8월 고용지표에서 시간당 임금이 마침내 상승하면서 고용지표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더욱이 실업률 역시 5.1%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연기할 명분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금리인상, 즉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감은 당분간 글로벌 자금의 안전 자산 선호현상을 강화시키면서 원화를 포함한 이머징 통화의 약세 압력을 높일 것임

중국 변수 역시 원화 약세 요인임. 중국 경기와 증시 불안이 지속될 공산이 높다는 점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실제로 중국 CDS 수준이 지난 13년 테이퍼링 위기 당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중이며 위안화 1년물 선물환 역시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반영하고 있는 점은 원화의 추가 약세 압력을 높일 것임

더욱이 7일 발표될 9월 중국 외환보유액이 8월 3.65조 달러에서 3.58조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위안화 혹은 원화의 약세 요인임. 참고로 중국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6월(3조 9,932억달러)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중임

대내적으로도 수출경기 부진 확대와 흠플러스 매각과 관련된 약 40억 달러 수준의 환전 수요 기대감 역시 대내적인 원 약세 변수임

■ 단기적으로 원/달러 1,200원선 등락,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어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원/달러는 단기적으로 1,200원선 등락을 예상함. 연말/연초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 9월 혹은 10월 미국 금리인상 이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감과 중국 경기 안정이 변수임. 다만 미국 경기 회복 지속시 내년 상반기 추가 금리인상 실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연말/연초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그림1> 달러화 흐름에 편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수준에 바짝 다가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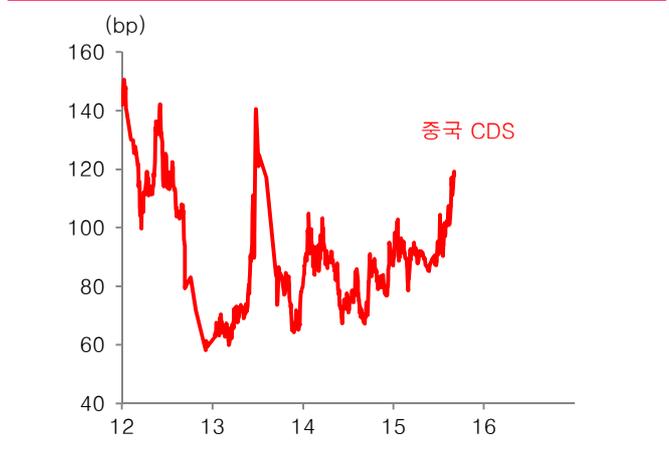
<그림2> 한때 800원 후반대까지 하락했던 원/100엔 환율 역시 1,000원 수준을 회복한 후 등락을 거듭 중



<그림3> 실업률 추가 하락과 임금상승률 회복은 금리인상 압력을 높이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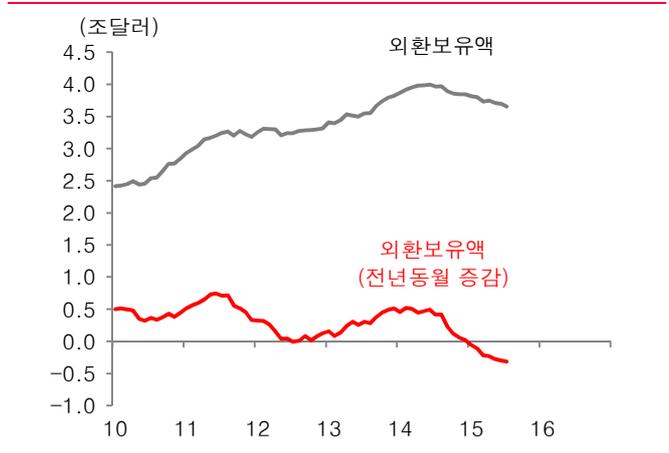
<그림4>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 영향 등으로 중국 CDS수준이 지난 13년 테이퍼링 당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중



<그림5> 원/달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중국 위안/달러 1년물 선물환은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반영중



<그림6> 중국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6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중임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김진명)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